

실용음악과 입시 가이드

실용음악과 입시, 현장에서 답하다

25년 동안 입시생을 지도하며
시험장에서 실제로 본 것들

KHMUSIC · 경희실용음악학원

PREFACE

이 책을 펼친 분께

실용음악과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비슷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느 학교가 좋은지, 수시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책은 그 질문들에 대해 학원 홈페이지에 한 편씩 써 온 칼럼을 모은 것입니다. 요강에 적힌 것과 시험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 사이의 간격을, 25년 동안 입시생을 지도하며 본 대로 적었습니다.

처음부터 읽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장부터 펼쳐 보세요. 각 장 끝에는 핵심을 세 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경쟁률·일정·요강 조건은 2027학년도 기준입니다. 해마다 바뀌니 지원 전에 각 대학 입학처 모집요강을 꼭 확인하세요.

경희실용음악학원 원장 조중욱

CONTENTS

차례

PART 1 실기 시험의 진짜 모습

입시곡만 준비하면 떨어집니다

실용음악과 입시,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붙습니다

2차에서 떨어지는 학생들의 공통점

PART 2 보컬 입시 준비

보컬 입시, 요강에 적힌 곡 수는 최소치입니다 (2027 요강 34개교)

고음만 자랑하면 떨어집니다

목소리 좋다는 말에 기대면 떨어집니다

PART 3 수시 이후, 정시까지

수시에 떨어졌다고 정시를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

수시 떨어지고 '해도 안 될 것 같다'는 아이에게

수시 2차, 그냥 넘기지 마세요

PART 4 다시 도전한다면

재수 vs 반수, 뭐가 나을까

PART 5 원서를 쓰기 전에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를 못 봅니다

2027 실용음악 수시 경쟁률 Top10

PART 6 실용음악과는 어떤 곳인가

실용음악과 1·2위는 4년제가 아닙니다

부록 학년별 준비 로드맵 · 더 알아보기

PART 1

실기 시험의 진짜 모습

입시곡만 준비하면 떨어집니다 — 실용음악과 실기는 사실상 면접입니다

> 요강에는 "자유곡 1곡"이라고 적혀 있지만, 자유곡은 자기소개입니다. 심사위원이 진짜 확인하는 것은 입시곡만 준비한 학생인지, 앞으로 어떤 음악을 하려는 사람인지, 우리 학교에서 잘 배울 사람인지입니다.

실용음악과 입시요강을 보면 실기는 간단해 보입니다. "자유곡 1곡", 많아야 "자유곡 2곡". 그래서 많은 학생이 그 한두 곡만 완벽하게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시험장은 다릅니다. **자유곡은 일종의 자기소개이고, 실용음악과 실기는 사실상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자유곡은 자기소개입니다

심사위원에게 자유곡은 지원자를 빠르게 파악하는 수단입니다. 어느 수준인지, 어떤 음악을 해 왔는지 몇 분 안에 감을 잡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다음입니다. 심사위원이 정말 알고 싶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이 사람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
- **왜 우리 학교**에 오고 싶은가

- 그걸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가

회사 면접과 같습니다. 이력서로 사람을 훑고, 면접에서 진짜를 확인합니다. 열아홉, 스무 살에 1~2년 준비하고 입시를 보는 학생에게는 굉장히 깊은 질문입니다. 질문의 폭도 넓고,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질문은 두 갈래로 나옵니다

1. 입시곡만 준비한 학생인지 확인하는 질문

한두 곡만 수없이 반복해 다듬은 학생인지, 음악을 실제로 다룰 줄 아는 학생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준비해 오지 않은 것을 그 자리에서 시킵니다.**

갈래	시험장에서 나오는 것
읽고 듣기	초견(코드·멜로디·리듬), 청음, 시창
즉석 연주	백킹트랙에 맞춰 연주, 무반주로 특정 장르·리듬 연주, 스케일, 반주자와 잼
다른 곡 더 보기	추가곡,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곡, 카피해 본 곡
만들고 바꾸기	리하모니, 즉흥 작곡, 자작곡, 미디에 대한 질문

2. 음악적 방향성을 묻는 질문

얼마나 배웠는지, 어떤 장르를 좋아하는지, 앞으로 어떤 음악을 하고 싶은지를 묻습니다. 정답이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자기 음악에 대해 생각해 본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질문입니다.

"왜 우리 학교인가"를 묻는 이유

회사가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습니까"를 묻는 것과 같습니다. 실용음악과 지원자는 대부분 여러 학교에 원서를 씁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뽑아도 안 오거나, 와서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얼마나 오고 싶은지**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좋은 답은 학교를 알고 온 답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 "이 학교에 ○○ 수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업이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 음악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지원했습니다. 뽑아 주시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학교의 수업 → 내가 하고 싶은 음악 → 배울 자세. 이 셋이 이어지면 됩니다.
지원하는 학교마다 학과의 교육과정을 미리 읽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공마다 무게가 다릅니다

전공	더 무게가 실리는 쪽	즉석에서 나올 수 있는 것
보컬	입시곡	추가곡, 시창, 자작곡
기악	추가 질문	초견(코드·멜로디·리듬), 백킹트랙 연주, 무반주 장르·리듬, 스케일, 청음, 리하모니, 반주자와 잼
작곡	둘 다	기악에 시키는 것 전부, 추가 자작곡, 즉흥 작곡(코드·영상·모티브를 주고)

보컬은 입시곡만으로도 웬만큼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선곡, 완성도, 디테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악은 반대입니다. 준비해 온 곡보다 그 자리에서 시키는 것에서 갈립니다. 대표적인 것이 초견입니다. 백킹트랙을 틀어 주고 어울리게 쳐 보라고 하거나, 반주 없이 특정 장르나 리듬을 쳐 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작곡은 둘 다 봅니다. 기악에 시키는 것을 모두 시킬 수 있고, 코드나 영상, 짧은 모티브를 주고 그 자리에서 곡을 만들어 보라고 하기도 합니다.

추가곡을 시키면 좋은 신호일까

시험장을 나온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좋은 신호입니다.** 아예 못하는 학생이 아니니, 이것저것 시켜 보면서 더 파악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만 많이 시킨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판단이 애매해서 갸우뚱하며 계속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그 자리에서 알 수 없습니다. 심사위원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신호를 읽으려 하기보다 **태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심사위원이 즉석에서 "이렇게 한번 해 볼래요?", "저렇게 바꿔 볼래요?" 하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르치면 잘 따라올 학생인지 보려는 것입니다. 이때 서툴러도 최선을 다해 해 보는 학생은 **배울 자세가 되어 있다**고 읽힙니다. 반대로 "못 하겠어요"라고 하는 순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은 거기서 멈춥니다.

단기간에 '딸깍'으로 되지 않습니다

위에 적은 질문들은 학원과 선생님들이 이미 알고 있고, 나올 만한 시나리오를 세워 준비시킵니다. 그런데 알려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 훈련으로 몸에 익혀야 하고, 거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연습만큼 중요한 것이 **음악을 듣는 것, 그리고 카피하는 것**입니다.

음악을 '보는' 시대

요즘은 음악을 유튜브 영상으로 '봅니다'. 알고리즘이 골라 준 비슷한 음악만 듣게 되고, 인터넷에는 좋은 자료와 카피 악보가 넘칩니다. 그러다 보니 직접 카피하는 학생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악성은 끙끙대며 음 하나, 코드 하나를 직접 들어 보는 데서 깊어집니다. 초견, 청음, 리하모니, 잼처럼 시험장에서 즉석으로 시키는 것들은 결국 이 귀에서 나옵니다.

카피는 이렇게 합니다

1. **악보 없이** 멜로디, 코드, 리듬을 반복해서 들으며 음 하나, 소리 하나에 집중해 땁니다.
2. 딴 소리와 감각을 **몸으로** 익힙니다.
3. 그다음에 **악보로** 옮깁니다.

힘들고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곡 전체가 아니어도 됩니다. 음악을 듣다가 마음에 드는 코드나 멜로디, 솔로 라인이 있으면 그 부분만 따 봅니다. 아니면 기본기 연습처럼 **하루 1시간은 무조건 카피**하는 루틴을 만듭니다.

마치며

요강의 "자유곡 1곡"은 시험의 전부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심사위원은 그 곡으로 사람을 훑고, 이어지는 질문으로 확인합니다. 입시곡만 준비한 학생인지, 어떤 음악을 하려는 사람인지, 우리 학교에서 잘 배울 사람인지.

그 질문에 답하는 힘은 입시곡을 몇 번 더 돌린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 듣고, 매일 카피하며 쌓은 시간**에서 나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2차에서 떨어지는 학생들의 공통점」

실용음악과 입시,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붙습니다 — 기본기와 방향성

> 25년 입시 지도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실용음악과 입시는 기본기(하드웨어)와 방향성(소프트웨어)으로 결정됩니다. 장르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시험장에서 드러납니다.

입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뭘 준비해야 붙나요?"입니다. 곡을 몇 개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장르가 유리한지, 학교마다 뭘 좋아하는지.

25년 동안 입시생을 지도하며 내린 답은 단순합니다. **실용음악과 입시는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기본기와 방향성입니다.**

첫째, 기본기 — 음악을 할 수 있는 몸

기본기는 음악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 일종의 피지컬입니다. 전공마다 내용은 다르지만 시험장에서 가장 먼저, 가장 빨리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전공	심사위원이 보는 기본기
기악 · 작곡	터치, 톤, 자세, 밸런스, 타임감, 그루브, 악보 읽기, 이론
보컬	음정, 박자, 발성, 호흡, 끝음 처리, 발음, 리듬감

곡이 아무리 화려해도 이 가운데 하나가 흔들리면 심사위원은 바로 압니다.
기본기는 꾸밀 수 없습니다.

둘째, 방향성 — 그 몸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

기본기가 하드웨어라면 개성과 방향성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가졌어도 그걸로 무엇을 할지가 없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음악도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은 실기 시험장에서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 앞으로 10년 뒤에 무엇을 하고 싶은가
- 대학에는 왜 오고 싶은가
- 어떤 뮤지션을 좋아하는가

최근 입시에서는 이 방향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실력만큼이나 **"이 학생이 4년 동안 무엇을 하려는 사람인가"**를 봅니다.

둘 다 가진 학생은 무조건 붙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하고 방향성까지 분명한 학생은 **무조건 붙습니다.** 제가 지도한 학생들 가운데 이런 학생은 한 곳이 아니라 보통 상위권 대학 여러 곳에 함께 붙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학생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은 고민합니다.

- **기본기가 갖춰진 학생**을 뽑아서 방향을 잡아 줄 것인가
- **방향성이 분명한 학생**을 뽑아서 기본기를 채워 줄 것인가

여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교수님마다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학교는 이런 학생을 좋아한다더라"는 소문이 돌게 됩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 장르

그 소문을 학생들은 흔히 **"어느 학교는 특정 장르를 좋아한다"**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장르는 상관없습니다.**

무엇을 연주하든, 무엇을 부르든 기본기와 방향성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좋아한다는 장르를 억지로 고르는 것보다 **본인이 잘하는 것, 하고 싶은**

방향을 확실하게 보여 주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어떤 장르를 고르든 기본기는 탄탄해야 합니다.

잘하는데 애매한 학생

시험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기도 좋고 연주력도 좋은데, 이 학생만의 개성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잘하긴 하는데 누구인지 모르겠는 학생입니다.

이럴 때 교수님들은 더 확인하려고 합니다. 좋아하는 뮤지션의 곡을 연주해 보라고 하거나, 면접을 길게 봅니다. 준비한 자유곡에서 보이지 않던 것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가장 좋은 준비는 분명합니다. **본인의 장점과 개성이 드러나는 곡을, 안정적이고 깔끔하게 연주하거나 부르는 것**입니다.

- 화려한 곡보다 **내 장점이 보이는 곡**을 고릅니다
- 그 곡을 **흔들림 없이** 할 수 있을 때까지 다듬습니다 — 이게 기본기입니다
- 왜 이 곡인지, 어떤 음악을 하고 싶은지 **내 말로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 이게 방향성입니다

기본기는 하드웨어, 방향성은 소프트웨어입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둘 다 갖추면 시험장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2차에서 떨어지는 학생들의 공통점

> 2차까지 올라온 학생은 연주력이 이미 일정 수준 이상입니다. 거기서부터 보는 것은 실력만이 아니라 학교 수업을 따라올 사람인지입니다. 이론과 시창을 아예 못한다는 것은 실력 문제가 아니라 태도로 읽힙니다.

노래만 잘하면 되겠지, 연주만 잘하면 되겠지 생각하고 간 학생들이 2차에서 떨어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2차까지 올라온 학생들은 연주력이 이미 일정 수준 이상입니다.** 1차에서 그걸 보고 걸렀으니까요. 거기 모인 사람들끼리는 연주로 크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2차에서 보는 것은 실력만이 아닙니다

물론 2차에서도 연주와 보컬을 꼼꼼히 봅니다. 하지만 그것만 보지 않습니다. **이론, 시창, 청음, 즉석 시퀀싱, 면접**을 통해 다른 것을 확인합니다.

학교 수업을 따라올 만한 학생인가. 이걸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실력이 비슷한 두 사람이 있으면, 이쪽에서 갈립니다. 연주가 좋아도 이론과 시창이 비어 있으면 **순위에서 뒤로 확 밀립니다.**

"못한다"가 아니라 "안 할 사람"으로 읽힙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론이나 시창은 재능의 영역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시간을 들이면 일정 수준까지는 누구나 올라옵니다.** 몇 달 꾸준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예 못한다거나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으면, 심사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읽습니다. **"이 학생은 학교에 와서도 시키는 걸 잘 안 하겠구나."**

실력이 모자란 것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태도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뒤집기 어렵습니다. 연주를 아무리 잘해도, 네 명 중 한 명을 뽑아야 하는 자리에서 "수업을 안 따라올 것 같은 학생"은 뒤로 갑니다.

요강에 없어도 나옵니다

서울예대와 동아방송예대처럼 2차에 무엇을 볼지 요강에 써 두는 학교가 있습니다. 몇 곡을 준비하라, 시창과 청음을 본다, 이론 시험이 있다고 적어 둡니다.

그런데 **적혀 있지 않아도 시킵니다.** 2차가 있는 학교라면 면접, 추가곡, 추가 질문, 시창, 이론, 자작곡에 대한 질문이 요강에 없어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요강에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요강엔 시창이 없으니까"는 준비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요강은 반드시 보는 것을 적어둔 최소치일 뿐입니다.

그리고 **1차 통과 후 2차까지 남는 시간은 며칠 단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며칠에 시창을 익힐 수는 없습니다.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10분씩 몇 달 쌓은 것과 전날 몰아서 본 것은 시험장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곡도 미리 늘려둬야 합니다

2차에서는 곡 수도 늘어납니다. 1차에 자유곡 한 곡이던 것이 두 곡이 되고, 준비해둔 곡 말고 **추가곡**을 그 자리에서 요구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1차에서 낸 곡을 그대로 쓰면서 한 곡만 더 얹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문제는 **그 한 곡의 성격**입니다. 곡이 두 개가 되면 심사자는 두 곡

사이의 차이를 봅니다. 같은 템포, 같은 리듬 계열로 두 곡을 놓으면 보여지는 폭이 한 곡짜리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학교마다 다릅니다. 홍익대는 1단계 자유곡 1곡에서 **2단계 2곡**, 동아방송예대는 2차에 **자유곡 2곡과 초견·즉흥연주·면접**이 함께 붙습니다. 서울예대는 곡 수는 그대로인 대신 **이론시험과 구두문답**이 더해집니다. 서경대는 1차·2차 모두 1곡입니다.

단계 구분이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한양대 기악은 자유곡 1곡, 동덕여대와 경기대 기악은 2곡, 호원대는 드럼·베이스·기타가 1곡이고 피아노가 2곡입니다.

정리

1차는 거르는 시험이고 **2차가 진짜 시험입니다.** 그리고 2차에서 보는 것은 연주 실력만이 아니라 **학교에 와서 잘 배울 사람인지**입니다.

이론과 시창은 재능이 아니라 시간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하루 10분이라도 넣어두면, 2차에서 그게 태도로 읽힙니다.

요강은 매년 조금씩 바뀌고, 적혀 있지 않은 것이 시험장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지원 전에 해당 대학 입학처 공식 발표를 꼭 직접 확인하시고, 거기 없는 것도 준비해 두세요.

이 장의 핵심

· 자유곡은 자기소개, 실기는 사실상 면접입니다.

· 결국 기본기(하드웨어)와 방향성(소프트웨어) 두 가지로 갈립니다.

· 2차에서는 이론·시창·청음·면접이 «배울 자세»로 읽힙니다.

PART 2

보컬 입시 준비

보컬 입시, 요강에 적힌 곡 수는 최소치입니다 (2027 요강 34개교)

> 요강은 자유곡 1곡 또는 2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장에서는 케이팝을, 애국가를, 춤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두세 곡이라는 최소선에서 어떻게 늘려 가야 하는지, 요강에 없는 이론·악기·자작곡 질문과 면접까지 정리했습니다.

"보컬 입시 몇 곡 준비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요강에 답이 적혀 있습니다. 자유곡 1곡, 또는 2곡입니다. 2027학년도 요강에서 보컬 실기 조건이 확인되는 34개교를 세어보면 **18개교가 자유곡 1곡**, **2곡을 요구하는 곳이 6개교**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대로 준비한 학생이 시험장에서 자주 막힙니다. 요강에 적힌 것이 그날 묻는 것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험장에서는 요강 밖의 것을 묻습니다

준비한 곡을 부르고 나면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케이팝 한 곡 해볼래요?"
"애국가 불러보세요."
"춤 출 줄 알아요?"

요강 어디에도 없습니다. 매번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나왔을 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요즘 가장 자주 나오는 형태는 **가요 발라드를 하이라이트만 짧게 불러보라**는 요구입니다. 한 곡을 통째로 더 시키는 것이 아니라, 후렴 한 토막으로 음역과 감정 처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노래만 묻는 것도 아닙니다. 요강에 시창이나 이론이 적힌 학교는 백석예술대(멜로디 시창), 동덕여대(건반화성학), 서울예대(이론시험·시창·구두문답) 정도인데, **적혀 있지 않은 학교에서도 묻습니다.** 화성 이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는지 그 자리에서 쳐볼 수 있는지, 자작곡이 있는지, 간단한 시창.

그리고 노래가 끝나면 이야기를 합니다. 짧게는 2~3분이지만 어떤 음악을 하고 싶은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왜 이 학교에 오고 싶은지, 좋아하는 뮤지션은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좋아하는 뮤지션을 물었을 때 이름만 대고 끝나는 것과, 그 사람의 무엇이 좋은지 한 문장이라도 덧붙이는 것은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정리하면 그날 평가받는 것은 준비한 곡 한두 개가 아니라 **지원자가 가진 것 전부**입니다.

그래서 요강보다 넉넉하게 준비합니다

두세 곡이 최소선입니다. 요강이 1곡이라고 해서 한 곡만 들고 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늘려 가는데, 늘릴 때 기준은 **장르 둘과 템포 둘**입니다.

- 가요 **빠른 곡** / 가요 **느린 곡**
- 팝 **빠른 곡** / 팝 **느린 곡**
- 여유가 되면 가장 많이 쓰이는 **가요 발라드**를 하나 더

이렇게 나눠두면 앞의 요구들이 대부분 그 안에서 해결됩니다. 케이팝을 요청받으면 가요 빠른 곡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분위기를 바꿔보라는 말에는 템포가 다른 곡을

꺼내면 됩니다. 비슷한 곡만 여러 개 있으면 곡 수가 많아도 꺼낼 것이 없습니다.

네 칸을 다 채우면 네다섯 곡이 되고, 더 할 수 있으면 그 이상도 갑니다. 다만 **몇 곡이 정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학생마다 남은 시간과 곡을 익히는 속도가 다릅니다. 두세 곡을 제대로 만든 쪽이 다섯 곡을 얕게 아는 것보다 낫습니다.

곡과 별개로, 시창과 기초 이론은 요강에 없어도 손에 익혀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룰 줄 아는 악기나 자작곡이 있다면 말할 수 있게 정리해 두시고요.

학교별 지정 조건은 따로 맞춰야 합니다

곡을 몇 개 준비하든, 지원할 학교의 조건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자유곡이라도 성격을 정해 놓은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지정 조건
서경대학교	2차는 **한글 가사곡** 1곡
호원대학교	2단계는 **발라드 1곡 + 리듬 있는 곡 1곡**
서울예술대학교	**가요 1곡 + 팝 1곡**, 리듬과 템포가 서로 달라야 함
용인대학교	자유곡 1곡 + **팝 1곡**
국제예술대학교	2단계는 **1단계와 중복되지 않는** 자유곡

특히 서경대는 1차가 자유곡이라 영어곡으로 준비했다가 2차에서 한국어 곡을 요구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어는 받침이 있고 자음이 촘촘해서, 영어곡에 맞춰 잡아둔 호흡이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2곡을 요구하는 학교는 여섯 곳입니다. 경희대와 계명대가 자유곡 2곡, 경기대·홍익대·동덕여대가 1차 1곡에서 2차 2곡으로 늘어나고(동덕여대는 건반화성학이 더

붙습니다), 명지전문대가 팝·재즈·국내 대중가요 중 2곡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곡이 하나 더 있다는 게 아니라 **두 곡의 색깔이 달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18개교는 자유곡 1곡입니다. 나사렛대, 백석대, 서울신학대, 평택대, 배재대, 예원예술대, 중부대, 한양여대, 여주대, 백제예술대, 인천재능대, 백석문화대, 동서울대, 국제대, 강동대, 정화예술대, 김포대, 숭의여대 등입니다. 한 곡으로 모든 걸 보여줘야 하므로 곡 선택의 무게가 그만큼 큽니다.

요강은 출발점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지원 목록을 먼저 정하고, 거기서 역산해 준비할 것을 뽑습니다.**

예를 들어 서경대·경희대·백석예술대를 쓴다면, 경희대가 2곡을 요구하니 준비한 곡 중 둘을 고르고, 그중 하나를 한글 가사곡으로 잡으면 서경대 2차까지 커버됩니다. 백석예대는 1곡이면 되니 둘 중 강한 곡을 쓰되, 멜로디 시창이 있으므로 시창 연습을 따로 넣습니다. 곡 두 개로 세 학교가 정리됩니다.

연습을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학교를 정하면 이 계산이 안 나옵니다. 조건이 안 맞아 실기를 코앞에 두고 새 곡을 급하게 올리는 일이 생깁니다.

요강은 매년 조금씩 바뀌고, 현장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학교와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반드시 나온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나왔을 때 준비되어 있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큽니다. 지원 전에 해당 대학 입학처 공식 발표를 꼭 직접 확인하세요.

고음만 자랑하면 떨어집니다 — 보컬 입시, 심사위원은 벌스부터 듣습니다

> 노래방에서는 고음이 잘 나오면 노래를 잘하는 겁니다. 입시는 다릅니다. 벌스를 단단하게 깔고 코러스에서 터뜨리는 것, 배운 대로가 아니라 내 해석으로 부르는 것 — 보컬 입시생이 표현력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컬 입시생의 실기를 듣다 보면 자주 보는 모습이 있습니다. 첫 소절은 불안하게 흘려보내고, 후렴에 들어가는 순간 «이만큼 올라갑니다» 하고 고음을 터뜨립니다. 본인은 거기서 승부를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듣는 쪽에서는 그 대목이 가장 듣기 힘든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왜 고음에 매달리게 될까

노래를 시작한 계기를 물어보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노래방에서, 장기자랑에서 «노래 잘한다»는 말을 듣고 한번 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고음이 시원하게 올라가면 노래를 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준이 거기에 맞춰진 채로 입시를 준비하게 됩니다.

고음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단단한 저음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려서 자연스럽게 터지는 고음이라면 당연히 장점입니다. 문제는 앞뒤 없이 «저 고음 이만큼 나와요»만 보여 주는 고음입니다. 곡의 흐름에서 떨어져 나온 고음은 실력이 아니라 소리 자랑으로 들립니다.

노래는 벌스에서 판가름 납니다

곡의 도입부, 즉 벌스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부르느냐가 먼저입니다. 벌스에서 음정·박자·호흡이 흔들리지 않고 이야기를 끌고 가야, 코러스에서 보여 주는 한 방이 힘을 가집니다. **벌스를 단단하게 깔고 코러스에서 터뜨리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취미와 입시는 기준이 다릅니다

취미로 노래하시는 분이라면 노래방에서, 장기자랑에서 잘한다는 말을 듣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평생 음악을 진로로 택한 입시생은 다릅니다. 교수님들은 고음이 잘 나온다고 «노래 잘하네» 하고 뽑지 않습니다. 이 학생에게 어떤 음악성이 있는지, 음악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는지를 봅니다.

선생님이 시킨 대로만 부르는 노래

정말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이 알려 준 대로만 노래합니다. 소리를 어디로 보내고 이 대목은 어떻게 불러야 한다고 배운 그대로를 재현하려고 합니다. 연습 때는 당연히 해 봐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익히는 것이 기본기입니다.

하지만 기본기는 기본기일 뿐입니다.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본인의 해석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음악이 아닙니다.** 배운 것을 그대로 옮긴 노래에는 감동도, 이야기도 없습니다. 듣는 사람이 «이 친구는 어떤 학생일까» 궁금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현력입니다. 기본기를 갖춘 위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표현력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기본기는 당연한 전제입니다. 음정·박자·발성·호흡이 갖춰진 위에서, 이 곡을 내가 어떻게 해석했는지가 들려야 합니다. 심사위원이 궁금해하는 건 소리가 아니라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입시곡을 다시 들어 보세요. 후렴의 고음이 아니라 첫 소절부터요. 거기서부터 내 노래가 시작됩니다.

목소리 좋다는 말에 기대면 떨어집니다 — 톤만 믿는 보컬, 입시는 기본기를 봅니다

> 톤이 좋다는 건 머리가 나쁘지 않다는 뜻이지 공부를 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기장에서 교수님이 한 번 더 불러 보라고 할 때 무엇이 드러나는지, 목소리 좋은 학생이 왜 아쉽게 떨어지는지 짚어 봅니다.

«목소리 좋다», «톤이 좋다». 보컬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한 번쯤 들어 본 말입니다. 듣기 좋은 칭찬이고, 실제로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입시 결과가 갈리기도 합니다.

목소리가 좋다는 건, 머리가 나쁘지 않다는 뜻입니다

공부에 빗대어 보면 이렇습니다. 톤이 좋다는 건 «머리가 나쁘지 않다»는 말에 가깝습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머리가 좋다고 시험에 붙는 게 아니고, 얼굴이 잘생겼다고 배우 오디션에 붙는 게 아닌 것처럼, 목소리가 좋은 것만으로는 합격하지 못합니다.

톤이 좋은 학생들은 그 말을 워낙 많이 듣다 보니 조금 넘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믿게 되고, 자기 목소리 하나로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입시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채점합니다

입시 실기는 정해진 기준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자리입니다. 기본기와 음악성을 갖추지 못한 학생에게 목소리가 좋다는 이유로 점수를 높게 줄 수는 없습니다. 심사위원 입장에서도 아쉬운 일입니다. 좋은 재료가 보이는데 그걸 받쳐 줄 것이 없으니까요.

실기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

목소리는 좋은데 호흡이 불안하거나 음정·리듬이 흔들리면, 교수님들은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목소리는 좋은데 떨려서 그런가?» 그래서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입시곡을 처음부터 다시 불러 보라고 하거나, 다른 곡을 하나 더 불러 보라고 합니다.

긴장 탓이었다면 두 번째에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기초가 다져지지 않은 학생은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다시 불러도 같은 자리에서 흔들리고, 다른 곡에서도 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교수님들은 아쉬워하면서 불합격을 주거나 예비 번호를 줍니다. 좋은 목소리가 오히려 «그래서 더 아쉬운 학생»으로 남는 순간입니다.

톤이 좋은 학생만의 연습법은 없습니다

톤이 좋은 학생에게 특별한 연습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성실하게 연습해야 합니다. 문제는 «잘한다»는 말을 많이 듣다 보니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해 연습을 덜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칭찬이 연습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기준은 하나입니다

목소리가 좋은 학생이든 아니든, 입시가 보는 것은 같습니다. **얼마나 자기만의 노력과 열정으로 음악성을 키워 왔는지, 그리고 매일 기본기를 얼마나 단단하게 다져 왔는지**입니다.

좋은 톤은 출발선이 조금 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출발선에서 매일 기본기를 쌓는 학생은 다른 누구보다 멀리 갑니다. 목소리가 좋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건 연습을 덜 해도 된다는 신호가 아니라 연습한 만큼 더 빛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제 칼럼에서는 고음에만 기대는 보컬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음이든 톤이든, 하나의 무기만 믿고 기본기를 놓치면 결과는 비슷합니다. → 고음만 자랑하면 떨어집니다 — 보컬 입시, 심사위원은 벌스부터 듣습니다

이 장의 핵심

· 요강의 곡 수는 최소치입니다. 장르 둘 × 템포 둘로 준비합니다.

· 심사위원은 고음보다 첫 소절, 벌스부터 듣습니다.

· 목소리가 좋다는 말은 출발선이 앞이라는 뜻일 뿐, 기본기가 합격을 만듭니다.

PART 3

수시 이후, 정시까지

수시에 떨어졌다고 정시를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

> 수시 1차에서 떨어졌다고 입시를 접기엔 이릅니다. 잘하는 학생은 이미 수시로 빠지고, 경쟁률은 낮아지고, 예비 번호는 많이 돕니다. 우리 학원 합격자의 70~80%가 수시에 떨어진 뒤 정시로 붙은 학생들입니다.

수시 1차 결과가 나오는 시기가 되면 상담실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1차 합격도 못 했고, 예비 번호도 안 떴고,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학교들까지 안 됐습니다. 그러면 학생도 학부모님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두세 달 뒤에 정시를 본다고 붙을 수 있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많이 붙습니다.

수시가 '경험 삼아' 보던 시험이던 시절

예전 실용음악과 입시에서는 "수시는 경험이고, 정시가 본 시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든 초점이 정시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수시가 정시보다 적게 뽑기도 했지만,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에게는 **시험 경험이 없습니다.** 처음 서는 실기 시험장에서 평소 실력을 그대로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아주 어릴 때부터 해 온 학생이 아니라면, **수시 시점에는 준비가 아직 덜 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수시 선발 인원이 늘면서 수시를 경험 삼아 본다는 생각은 거의 사라졌고, 4년제 대학은 인원 대부분을 수시에서 뽑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시험 경험이 없다는 것, 준비 기간이 길지 않다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것은 조바심뿐입니다.**

수시 1차는 원래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앞선 글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를 못 봅니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시에 합격해도 정시를 볼 수 있는 백석예대·국제예대·정화예대에는 수시 1차 때 지원자가 몰립니다. 이 세 학교도 **수시 1차 때는 결코 만만한 시험이 아닙니다.** 수시 2차와 정시 때는 훨씬 해볼 만해지는데도, 1차 결과 하나로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결론을 내리는 학생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붙는 학생들은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수시 1차를 치르고 나서 **자기 문제점을 정확히 고쳐 정시에 다시 서는 학생**이 붙습니다. 수시 1차 한 번을 보고 입시를 접거나 벌써 재수를 정하는 학생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정시가 오히려 해볼 만한 세 가지 이유

수시와 정시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시험입니다. 선발 인원은 조금 줄었지만, 정시가 훨씬 해볼 만합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1. 잘하는 학생들이 이미 빠져 있습니다

수시에서 이미 실력이 좋은 학생들, 그리고 재수생·N수생이 꽤 많이 합격해 나갑니다.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정시 시험장에는 수시 때만큼 잘하는 학생이 많지 않습니다.**

2. 경쟁률 자체가 낮아집니다

수시 합격자가 빠지고, 정시를 포기하는 학생도 생깁니다. 4년제는 가·나·다군으로 시험이 나뉘어 있어 지원자가 군별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정시 경쟁률은 수시보다 낮게 형성됩니다.**

3. 예비 번호가 많이 돕니다

정시는 그해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시 때보다 훨씬 많은 학교에 지원하고, 대부분 하향 지원까지 씁니다. 한 학생이 여러 학교에 붙으면 결국 한 곳만 등록하니, **나머지 자리는 예비 번호로 넘어갑니다.** 합격자 발표 뒤에도 충원은 보통 2월 말까지 이어지고, 그 사이 예비 번호가 꽤 많이 빠집니다. 심지어 **예비 번호를 받지 못한 학생에게까지 합격 연락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우리 학원 합격자의 70~80%는 수시에 떨어진 뒤 정시로 붙은 학생들입니다.**
> 특히 고등학생은 수시에서 잘 붙지 않습니다. 시험 경험이 없고 준비 기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정시에서 합격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수시가 끝나고 정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

수시 1차 결과가 나오고 정시 실기까지는 보통 두세 달이 남습니다. 4년제 정시 원서는 1월 초에 받고, 실기는 1월 중순부터 말까지 군별로 치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쉬는 건 2~3일이면 충분합니다

결과를 받고 마음을 추스를 시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길어야 2~3일입니다. 문제는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연습을 놓아 버리는 경우**입니다. 이 시기에는 멘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악을 하는 긴 길에서 이제 막 큰 오디션 하나를 본 것뿐인데, 다 끝난 것처럼 행동하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곡은 지키고, 한두 곡만 더합니다

곡을 통째로 바꾸는 것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에게 너무 안 맞는 곡을 가져갔거나, 곡에 질려 더 이상 애정이 없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수시 곡은 그대로 가져가고, 다른 곡을 한두 곡 정도 더 준비**합니다.

완성도에 집착에 가까울 만큼

정시까지의 두세 달 동안 끌어올려야 하는 것은 **완성도, 디테일, 표현력**입니다. 어떤 곡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만족하지 않고 계속 파고들면 또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그 정도의 집착으로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학생이 정시에서 붙습니다.

정시 원서는 몇 곳을, 어떻게 쓰나

4년제 정시는 가·나·다군에 한 곳씩, 최대 세 곳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2·3년제(전문대학) 정시는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향·적정·하향을 모두 섞어 전문대학까지 합쳐 일곱, 여덟 곳**을 씁니다.

재수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라도, 내년에 꼭 가고 싶은 학교가 있다면 **정시에서 그 학교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는 것**이 내년을 위해 좋습니다. 그 학교의 시험장 분위기, 심사 방식, 내가 어디에서 흔들리는지를 미리 알아 두는 것만으로도 1년의 준비가 달라집니다.

마치며

수시 1차는 입시의 끝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에게 **첫 번째 실전**입니다. 거기서 드러난 문제점을 두세 달 동안 얼마나 정확하게 고치느냐가 정시 결과를 정합니다. 지금 포기하기에는, 정시는 생각보다 훨씬 해볼 만한 시험입니다.

수시 떨어지고 '해도 안 될 것 같다'는 아이에게 — 정시에서 뒤집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 수시에 떨어진 아이는 실력 부족을 이미 압니다. 그래도 정시에서 뒤집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재능은 있는데 안 했던 아이, 자신감이 없던 아이, 이제 막 시작한 아이 — 경우마다 지금 할 일이 다릅니다.

수시 발표가 하나둘 나오는 시기입니다. 이맘때 떨어진 아이들과 이야기해 보면 **"해도 안 될 것 같아요"**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오늘은 그 말을 하는 아이와, 그 옆에서 같이 속을 끓이는 부모님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듣기 좋은 위로보다는 솔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수시에 떨어진 아이들이 "운이 없었다", "심사가 이상했다"고 말할 것 같지만, 그런 아이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대부분은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았고 실력이 부족했다는 걸 이미 인정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부족한 걸 알아도, 그걸 메울 만큼의 **의지와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입니다. 그렇게 현타가 오면 고민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 정시에는 어디를 써야 하나, 거길 쓰면 붙을까
- 부모님은 뭐라고 하실까
- 재수를 해야 하나
- 음악을 계속해야 하나, 그만두면 뭘 할 수 있나

"해도 안 될 것 같다"는 말은 게으름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정시에서 뒤집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수시가 끝나면 아이들은 목표라고 생각했던 학교가 생각보다 멀리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20년 가까이 지켜보면, 정시에서 결과를 뒤집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가 어떤 경우인지에 따라 지금 할 일이 다릅니다.

재능은 있는데 노력을 안 했던 아이

수시에 떨어지고 나서 오히려 승부욕이 불타 확 몰아붙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원래 가진 게 있으니, 남은 기간에 제대로 불이 붙으면 **상위권에도 붙습니다.** 이런 아이에게 필요한 건 위로보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분명한 자극입니다.

성실한데 자신감이 없던 아이

늘 열심히 했는데 시험장에서 자기 실력을 다 못 보여 준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수시를 한 번 겪고 나면 **"생각보다 할 만하네"** 하고 자신감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신감으로 정시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도 합니다. 수시가 실패가 아니라 리허설이었던 셈입니다.

거의 안 했거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경우 지금부터 서울예대, 동아방송예대, 호원대, 한양대, 홍익대, 서경대, 동덕여대, 경희대 같은 최상위권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절망하면 눈높이를 한꺼번에 너무 낮춰서 거의 미달에 가까운 학교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해도 **백석예대, 국제예대, 정화예대, 여주대 같은 중위권·중상위권 학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실기에서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곡보다 **기본기를 흔들림 없이 보여 주면 됩니다.** 기본기가 무엇인지는 「실용음악과 입시,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붙습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해 오던 것을 더 단단하게

이맘때 SNS에는 같이 준비하던 친구들의 합격 소식이 하나둘 올라옵니다. 축하해 주고 싶은 마음과 별개로, 안 그래도 흔들리는 마음이 더 싱숭생숭해집니다. 나만 멈춰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시선을 나에게로 가져오세요. 친구의 결과는 친구가 보낸 시간대로 나온 것이고, 내 결과는 앞으로 내가 보낼 시간대로 나옵니다.

이런 때일수록 특별한 합격 비법이 있지 않을까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비법은 없습니다.** 답은 아이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전공	정시까지 집중할 것
보컬	기본기 · 완성도 · 표현력
기악	기본기 · 완성도 · 초견

정시까지는 **이것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기본기가 단단하고, 보컬은 표현력이, 기악은 초견이 받쳐 주면 시험장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시 실기장을 잊기 전에 적어 두세요

수시는 끝났지만, 그 시험장에서 겪은 일은 정시를 준비하는 데 가장 좋은 재료입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아이와 함께 적어 두세요.

- **어디서 흔들렸나** — 첫 소절, 고음, 박자, 긴장해서 손이 굳었던 순간
- **무엇을 물었나** — 심사위원의 질문과 시킨 것, 그때 내가 한 대답
- **어떤 곡이 불안했나** — 연습 때부터 자신 없던 부분이 시험장에서도 그대로 나왔는지

이 메모가 정시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막연히 "더 열심히"가 아니라, 무너진 지점부터 하나씩 메우면 됩니다. 성실한데 자신감이 없던 아이에게는 이 기록이 "다음엔 여기만 고치면 된다"는 자신감이 됩니다.

다시 시작은 아주 작게

어떤 경우든 문제는 에너지입니다. 바닥난 상태에서 거창한 계획을 세우면 사흘을 못 갑니다. 그래서 아주 작게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 **일찍 자고, 아침에 일어난다.** 밤새 연습하는 건 하지 마세요. 몸이 무너지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 **운동을 조금이라도 한다.** 정시까지는 멘탈 싸움이고, 멘탈은 의지보다 몸과 생활에서 나옵니다.
- **매일 그날 연습할 것을 적는다.** 한 줄이어도 됩니다.
- **매일 녹음해서 듣는다.** 기본기는 들어 봐야 보입니다.
- **일주일에 한 번은 누군가 앞에서 해 본다.** 실기는 면접에 가깝습니다. 사람 앞에서 해 본 아이가 시험장에서 덜 흔들립니다.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해 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내는 아이가 정시에서 뒤집습니다.

부모님께

지금 정해야 할 것은 "어디까지 낮출까"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경우인지 보고, 남은 기간에 무엇을 할지**입니다. 이때 해 주실 말도 아이마다 다릅니다.

- **열심히 하는데 부담감이 큰 아이에게는** "다 떨어져도 괜찮아. 재수해도 괜찮으니까 최선만 다해 보자." 짐을 덜어 주는 말이 오히려 힘이 됩니다.

- **열심히 하지 않던 아이에게는** 같은 말이 독이 됩니다. "재수해도 된다"고 하면 그대로 손을 놓아 버립니다. 이런 아이에게는 **"이번이 마지막이다"**가 맞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아이라면, 미달에 가까운 학교가 아니라 지금부터 노릴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를 함께 정해 주세요.

"해도 안 될 것 같다"는 아이에게 필요한 건 큰 목표가 아니라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연습실로 무조건 가야 하는 이유 하나입니다. 정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시를 왜 포기하면 안 되는지는 「수시에 떨어졌다고 정시를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시 2차, 그냥 넘기지 마세요 — 2027 실용음악 수시 2차 13곳 일정과 인원

> 수시 1차가 아쉬웠다면 2차를 한 번 더 보세요. 작년 1·2차 지원자·경쟁률 비교와, 2027학년도 수시 2차로 실용음악을 뽑는 13곳의 일정·인원·주의사항을 모집요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시 1차 발표가 하나둘 나오는 시기입니다. 예비 번호도 뜨지 않은 학생이 많고, 몇 달을 달려온 터라 에너지도 바닥입니다. 그래서 이맘때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수시 2차는 그냥 넘기고, 좀 쉬었다가 정시 준비할게요."

재충전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저는 웬만하면 기운을 차려서 수시 2차를 한 번 더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시험이 끝난 게 아닙니다. 수시 2차, 그리고 정시까지 쭉 가야 합니다.

오늘은 왜 수시 2차를 써야 하는지, 그리고 2027학년도 수시 2차로 실용음악을 뽑는 학교의 일정과 인원을 각 대학 모집요강 원문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시 2차를 써야 하는 이유

첫째, 지원자가 절반 가까이 빠집니다. 1차에서 지친 학생들이 2차를 건너뛰기 때문입니다. 작년(2026학년도) 백석예술대 실용음악과는 1차에 4,809명이 지원했는데 2차에는 2,621명이 지원했습니다. 국제예대 실용음악도 2,268명에서 1,272명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모집 인원도 같이 줄어서 경쟁률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보컬로 보면 이렇습니다.

2026학년도 보컬	1차 경쟁률	2차 경쟁률
백석예술대	54.6 : 1	47.2 : 1
정화예대	11.6 : 1	11.4 : 1
국제예대	63.4 : 1	99.5 : 1

백석은 조금 낮아졌고, 정화는 비슷했고, 국제예대는 모집이 17명에서 6명으로 크게 줄어 오히려 높았습니다. 그래도 경쟁자의 절반이 빠진 판에서 한 번 더 볼 기회를 그냥 넘길 이유는 없습니다.

둘째, 수시에 붙어 두면 정시가 편해집니다. 붙어 둔 학교가 있으면 정시는 가고 싶은 상위권 학교 위주로 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하향 지원까지 고민하며 원서를 나눠 쓸 필요가 줄어듭니다.

셋째, 아직 끝난 시험이 아닙니다. 수시 2차 실기는 12월 초·중순, 정시 실기는 1월입니다. 2차를 준비하는 시간이 그대로 정시 준비가 됩니다.

수시 2차로 실용음악을 뽑는 곳 — 2·3년제 13곳

4년제 대학은 수시를 9월에 한 번만 받습니다. 11~12월에 실용음악으로 새로 원서를 낼 수 있는 곳은 **전문대 수시 2차**뿐이고, 원서 접수는 모두 **11월 11일(수)부터 25일(수)까지**입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백석예술대, 국제예대, 정화예대**는 꼭 써 보라고 권합니다.

학교	2차 인원(정원 내)	실기	합격 발표
백석예술대 실용음악과	124명 (보컬 28 · 기타 12 · 건반 11 · 베이스 10 · 드럼 10 · 프로덕션 계열 52 등)	12/10~12/12	12/18
정화예대 실용음악	보컬 88 · 뮤직테크놀로지 108 · 싱어송라이터 16 · 작편곡 12 · 기악 23 등	12/3~12/13 (전공별)	12/18
국제예대 실용음악	보컬 6 · 싱어송라이터 4 · 베이스 3 · 프로듀싱 3 등	12/3~12/14	12/17
장안대 실용음악과	22명 (보컬 10 · 미디/싱어송 7 · 기악 5)	12/2~12/5	12/18
연성대(안양) K-POP과	15명	12/2~12/6	12/17
김포대 실용음악과	15명	12/3~12/4	12/11
동원대(경기 광주) 실용음악과	12명	12/2~12/3	12/18
국제대(평택) K-POP전공	12명	12/2~12/5	12/18
재능대(인천) 실용음악과	11명	12/5	12/18
신안산대 실용음악과 · 뉴케이팝학과	10명 · 6명	12/11	12/18
경복대 실용음악과	8명 (보컬만)	12/4	12/16
용인예술과학대 실용음악과	6명 (보컬·작곡만)	12/4	12/17
오산대 보컬·K-POP콘텐츠과	4명	12/4~12/5	12/11

인원은 학교마다 차이가 큽니다. 정화예대는 2차에서도 보컬 88명, 뮤직테크놀로지 108명을 뽑습니다. 국제예대는 보컬이 1차 15명에서 2차 6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위 인원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백석예술대·국제예대·정화예대를 비롯해 여러 학교가 1차에서 채우지 못한 인원을 2차에 더해 뽑습니다. 최종 인원은 1차 발표 뒤 각 학교 입학처에 공지됩니다.

수시 2차가 없는 곳

- **서울예대** — 수시 원서는 9월 한 번뿐입니다. 남은 일정은 11/6(금) 최종 발표입니다.
- **동아방송예대** — 수시 2차가 없습니다.
- **명지전문대** — 학교 전체로는 2차가 있지만, 실용음악과는 재외국민·북한이탈주민만 뽑습니다.
- **여주대** — 1차에서 못 채운 인원은 정시로 넘어갑니다.

원서 내기 전에 꼭 확인할 것

- **1차 합격자가 지원할 수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백석예술대는 수시 1차 합격자가 2차에 지원하면 자동 취소됩니다. 정화예대는 같은 전공에 1차·2차 모두 붙으면 2차 합격이 자동 포기됩니다.
- **실기 예약이 선착순인 곳이 있습니다.** 백석예술대는 12/1(화) 오전 10시~오후 5시 선착순이고, 예약하지 않으면 학교가 임의로 배정합니다. 정화예대·연성대·재능대·오산대도 예약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 **실기 날짜가 몰려 있습니다.** 13곳의 실기가 대부분 12월 2일부터 14일 사이에 몰려 있습니다. 두 곳 이상 지원한다면 날짜가 겹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백석예술대는 다른 학교와 일정이 겹쳐도 전형료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 **국제예대 보컬은 1단계 영상을 먼저 냅니다.** 업로드 기간은 원서 접수 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11/11 전에 꼭 확인하세요.
- **실기 내용은 대부분 1차와 같습니다.** 백석예술대·국제예대·정화예대 모두 2차 실기 곡 조건과 반영 비율이 1차와 같고, 바뀌는 것은 일정과 인원뿐입니다. 1차 때 준비한 곡을 다듬어 가면 됩니다.

지금 할 일은 하나입니다

1차 결과가 아쉬웠다면, 그 마음 그대로 2차 원서를 쓰세요. 1차 때 준비한 곡을 한 번 더 다듬고, 12월 실기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세요. 그 시간이 그대로 정시 준비가 됩니다.

아직 시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시 2차, 그리고 정시까지 쭉 가 봅시다.

이 장의 핵심

· 정시는 경쟁률이 낮고 예비 번호가 많이 돕니다.

· 수시 결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다시 세우면 됩니다.

· 수시 2차는 놓치기 쉬운 기회입니다.

PART 4

다시 도전한다면

재수 vs 반수, 뭐가 나을까 — 졸업자 전형·편입까지, 실용음악과 다시 가는 네 가지 길

> 수시가 끝나면 시작되는 고민, 재수냐 반수냐. 두 길의 장단점과 누구에게 무엇을 권하는지, 졸업이 가까워진 학생들이 고르는 졸업자 전형과 편입의 실제 경쟁률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시가 끝나면 입시생들에게 슬슬 현타가 옵니다. 올해 원하던 학교에 가기는 어렵겠다는 걸 스스로 깨닫는 시기입니다. 특히 백석예대, 국제예대, 정화예대에서도 예비 번호조차 뜨지 않으면 고민이 시작됩니다.

"재수를 해야 하나, 아니면 어디든 일단 간 다음에 반수를 해야 하나."

상담을 해 보면 아이들 속마음은 대개 이렇습니다. 백석, 국제, 정화 정도만 붙으면 일단 자존심도 덜 상하고, 그 학교에 다니면서 부모님께 반수 얘기를 꺼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재수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쉬우니까요.

오늘은 재수와 반수를 하나씩 따져 보고, 졸업이 가까워진 학생들이 고르는 두 길, 졸업자 전형과 편입까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수 — 1년을 온전히 실력에 쓸 수 있다

재수의 가장 큰 장점은 **1년 동안 실력을 올리는 데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1년을 잘 보내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비용도 생각보다 차이가 큽니다. 대학 한 학기 등록금이면 1년 치 레슨비와 거의 비슷합니다. 반수를 하면 그 한 학기 등록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 됩니다.

단점은 **불안감**입니다. 1년을 더 한다고 더 좋은 학교에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 본인도 자기가 1년을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건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두 번째 방법이 반수입니다.

반수 — 일단 학교에 다니다가 휴학하고 다시 준비한다

반수는 일단 대학에 들어가 1학기 정도 다닌 뒤, 휴학하고 입시를 다시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안정감**입니다. 돌아갈 학교가 있으니 마음이 덜 불안합니다. 그리고 한 학기라도 대학을 다녀 보면 입시를 벗어나 음악을 경험해 볼 수 있고, **학교가 학생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조금은 느낄 수 있습니다.

단점은 세 가지입니다.

- **비용** — 다른 학교에 붙어서 옮기게 되면, 다닌 학교에 낸 한 학기 등록금은 그대로 날아갑니다.
- **안주** — 반수의 장점인 안정감이 거꾸로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돌아갈 곳이 있으니 간절함이 덜해집니다.
- **준비 기간** — 1학기를 마치고 휴학하면 거의 7~8월입니다. 그런데 수시 원서 접수가 9월입니다. 수시를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어서 사실상 정시를 보고 준비하게 되는데, 그것도 촉박합니다.

"1학기 동안 학교 다니면서 연습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과제, 공연 준비, 합주가 이어지고, 열심히 하는 학생일수록 한 학기가 금방 지나갑니다. **입시를 위한 개인 연습 시간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반수로 성공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원래 잘했는데 운이 따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낮은 학교에 간 학생**입니다. 그 밖에는 휴학하고 정시를 정말 빡세게 준비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도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결국 3수로 이어지거나, 휴학도 하지 않고 입시철마다 원서만 넣어 보는 학생도 많습니다.

반수를 생각한다면 들어갈 학교의 학칙도 먼저 확인해 두세요. 대학에 따라 신입생은 첫 학기, 길게는 첫 두 학기까지 휴학을 막기도 합니다.

졸업이 가까워지면 — 졸업자 전형과 편입

반수에 실패하고 원래 학교로 돌아간 학생들이, 시간이 흘러 졸업이 가까워지면 다시 고민하는 길이 두 가지 있습니다.

졸업자 전형 — 경쟁률은 낮지만 쉽지는 않다

2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서울예대, 동아방송예대 같은 학교에 **정원 외로 다시 입학**하는 전형입니다. 동아방송예대에서는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뽑습니다.

정원 외 전형이라 경쟁률은 확실히 낮습니다. 동아방송예대 2027학년도 수시 실용음악 계열을 보면 차이가 큽니다.

학과	졸업자 전형	일반 전형
기악과	5명 모집 · 19.2 대 1	18명 모집 · 약 70.6 대 1
보컬과	3명 모집 · 72.3 대 1	17명 모집 · 약 130.9 대 1
작곡과	5명 모집 · 10.6 대 1	13명 모집 · 약 51.5 대 1

그런데 숫자만 보고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오는 학생들**이라 잘하는 학생이 꽤 많습니다. 보컬은 졸업자 전형도 72 대 1입니다. 경쟁률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쉽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편입 — 말 그대로 바늘구멍

편입은 2학년까지 마치고(또는 2·3년제를 졸업하고) 다른 학교 **3학년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는 학생은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뽑는 인원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편입은 그 학교에 빈자리가 나야 뽑는데, 실용음악과는 그 자리가 한두 명일 때가 많고 아예 없는 해도 많습니다.

- 서경대 실용음악학부 2026학년도 편입은 **보컬·기악·작곡·싱어송라이터를 모두 합쳐 4명**을 뽑았는데, 287명이 지원했습니다. 그중 보컬 지원자만 191명이었습니다. 실기 100%입니다.
- 한양대 ERICA 실용음악학과는 2024·2025학년도에 일반 편입을 1명씩 뽑았고, 2026학년도 편입 경쟁률표에는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편입은 "나중에 편입하면 되지" 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 해에 자리가 나면 도전해 볼 수 있는 길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학교 욕심이 있다면, 재수가 나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욕심이 있고 1년을 정말 열심히 할 자신이 있다면, 저는 재수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켜본 바로는,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한 학생은 최소 한두 등급 이상 높은 학교에 진학합니다.**

특히 아래 두 경우는 지켜보는 저도 아쉬움이 커서 더 그렇습니다.

- 열심히 했고 가능성도 있는데, 준비 시간이 너무 부족했던 학생
- 잘하는데 운이 따르지 않아서, 기대보다 낮은 학교에 가야 하는 학생

반수가 더 쉬운 길은 아닙니다. 반수도 결국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학교생활과 입시 준비를 함께 끌고 가야 해서, **자기 관리를 더 잘해야 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1년을 버틸 자신이 아직 서지 않는 학생에게는 "일단 학교에 가 보고, 다녀 보면서 결정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재수를 생각한다면, 정시 원서는 어디까지 쓸까

재수를 할지는 정시까지 최선을 다해 본 뒤에 정해도 됩니다. 다만 재수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다면, **정시 원서를 어디까지 쓸지**가 고민이 됩니다. 이건 학생마다 다릅니다.

- **하향 지원까지 넣는 학생** — 어디든 붙어서 자존심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재수를 하겠다는 경우입니다.
- **가고 싶은 학교 위주로만 넣는 학생** — 굳이 쓸 필요가 없다고 느끼거나, 하향 지원한 학교마저 떨어지면 타격이 더 클 것 같아서 넣지 않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 맞다는 정답은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원서를 쓰기 전에 가족과 먼저 이야기해 두세요.

좋은 재수의 하루

재수는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 대신, 그 시간을 지켜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 되는 재수생의 하루는 단순합니다. **오전부터 저녁까지 연습하고, 일찍 자고, 운동을 합니다.**

반대로 흔히 무너지는 길도 있습니다. 개인 연습실을 얻어 밤새 연습하다 낮밤이 바뀌는 경우, 아르바이트에 치여 정작 연습 시간을 못 내는 경우입니다. 연습실과 장비를 갖추는 데 힘을 쏟다가 1년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결국 길보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이 친구는 재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학생이 반수를 택한 경우에도, 결과는 정말 다양합니다. 반수로 바로 붙는 학생도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졸업한 뒤 졸업자 전형으로 다시 도전하기도 하고, 반수 끝에 결국 3수를 거쳐 붙는 학생도 있습니다.

어느 길이든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건 재수냐 반수냐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어느 길을 고르든 **내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 몇 시간을 연습할지**부터 정해 보세요. 그게 어느 길에서든 결과를 바꾸는 첫 단계입니다.

이 장의 핵심

· 재수는 1년을 온전히 실력에 쓸 수 있지만 자기관리가 관건입니다.

· 반수는 시간이 짧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 어느 길이든 매일의 생활 습관이 결과를 가릅니다.

PART 5

원서를 쓰기 전에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를 못 봅니다 — 예외인 세 학교

> 수시 합격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그해 정시 지원 자격을 없앱니다. 다만 백석예술대·국제예술대·정화예술대 세 곳은 다릅니다. 근거가 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용음악 입시에서 지원 계획을 짤 때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은 곡도 학교도 아닙니다. **수시에 합격하면 그 학교에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원칙을 모르고 원서를 넣으면, 붙고 나서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를 볼 수 없습니다

대학 입학 전형에는 복수지원 제한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등록을 하든 하지 않든 그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등록을 포기하면 자리가 빌 뿐이고, 지원 자격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등록만 안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입니다. 아닙니다. 기준은 등록 여부가 아니라 **합격 여부**입니다. 4년제 대학도, 전문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시 지원은 "붙으면 가겠다"는 학교로만 채워야 합니다. 연습 삼아 넣어본 학교에 붙어도 그 결과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 학교는 다릅니다

백석예술대학교, 국제예술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 **이 세 곳은 수시에 합격해도 정시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합격을 확보해 둔 상태로 정시를 치르고, 결과를 본 다음에 어디로 갈지 정할 수 있습니다.

세 학교만 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름에 모두 '대학교'가 붙어 있지만, **이 세 곳은 고등교육법상 대학이 아니라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입니다. 전문대학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이고, 2008년에 셋 다 같은 제도로 전환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전공대학은 이 세 곳뿐입니다.

복수지원 제한은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한 대학 입학 전형의 규칙입니다. 전공대학은 그 체계 밖에 있어서 같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학교가 특별히 배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적용되는 법이 다른 것**입니다.

전문대학이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헷갈립니다. "2·3년제면 되는구나"로 옮겨 가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분	근거	수시 합격 후 정시 지원
4년제 대학	고등교육법	불가
전문대학 (2·3년제)	고등교육법	불가
전공대학 (세 곳)	평생교육법	가능

서울예술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명지전문대학교처럼 실용음악과가 있는 전문대학은 모두 고등교육법상 학교입니다. **여기에 수시로 합격하면 정시는**

끝납니다. 전공대학 세 곳과 나머지 전문대학은 이름이 비슷해도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학위는 전문학사로 같습니다

제도가 다르다고 해서 졸업장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전공대학을 졸업하면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전문학사 학위**를 받습니다. 편입이나 취업에서 학력으로 불리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예치금을 겁니다

"합격을 킵해 둔다"는 것이 막연한 말은 아닙니다. 실제 절차는 **예치금을 걸어 합격 자격을 유지한 채 정시를 치르고, 정시 결과를 본 뒤에 최종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챙겨야 할 것은 액수보다 기한입니다. 예치금 납부 기간, 금액, 정시 합격 후 포기할 때의 반환 기준은 학교마다 연도마다 다릅니다. **기한을 한 번 넘기면 확보해 둔 합격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지원을 결정한 시점에 해당 학교 모집요강에서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 두세요.

경쟁률은 수시 1차에 몰립니다

이 구조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까지 안전장치 삼아 이 세 곳에 원서를 넣고, 지원은 **수시 1차에 몰립니다.** 2027학년도 수시 1차 보컬만 봐도 백석예술대는 44명 모집에 2,316명(52.6 대 1), 국제예술대는 15명 모집에 1,177명(78.5 대 1)이 지원했습니다.

반면 **수시 2차와 정시는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이유는 이렇습니다.

- 수시 2차를 뽑는 학교가 많지 않아, 2차는 건너뛰고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 수시 1차를 치르고 나면 에너지가 많이 소진됩니다
- 1차에서 드러난 부족한 점을 2차까지 고치기엔 시간이 짧다고 보는 학생이 많습니다

정시는 지원자 자체가 줄어듭니다. 수시에 합격한 학생은 정시에 올 수 없고, 수시 결과를 보고 그만두는 학생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 시험이라 학생마다 여러 학교에 원서를 넣다 보니, 합격자가 다른 학교로 빠지면서 **예비 합격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곳의 수시 1차는 '붙어 두고 정시를 보는 곳'이라는 생각과 달리, **수시 2차나 정시보다 오히려 만만하지 않은 시험**입니다. 반대로 1차에서 안 됐다고 끝난 것도 아닙니다. 2차와 정시가 남아 있습니다.

경쟁률은 해마다 달라지니 접수 기간에 각 학교 입학처의 실시간 경쟁률을 직접 확인하세요.

정리

- 수시에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그해 정시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예외는 백석예술대·국제예술대·정화예술대 세 곳입니다. 고등교육법이 아니라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전공대학이기 때문입니다
- 같은 2·3년제라도 서울예대·동아방송예대 같은 전문대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학위는 전문대학과 같은 전문학사입니다
- 예치금 납부 기한·금액·반환 기준은 학교와 연도마다 다르니 모집요강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지원은 수시 1차에 몰리고, 수시 2차와 정시는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1차에서 안 됐다고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지원 계획은 학교를 고르는 일이 아니라 **선택지를 언제까지 열어 둘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수시 원서를 넣기 전에 이 구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7 실용음악 수시 경쟁률 Top10 — 보컬은 줄고 밴드 악기가 늘었습니다

> 작년과 나란히 놓으니 분명한 이동이 보입니다. 5개 대학 보컬 지원자는 292명 줄었고 드럼·베이스·기타는 모두 늘었습니다. 밴드에 들어가지 않는 건반만 제자리였고, 싱어송라이터는 늘었습니다.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가 끝났습니다. 전공별 경쟁률을 공개한 4년제 13개 대학 기준으로 320명 모집에 18,786명이 지원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작년과 비슷해 보이지만, 작년 경쟁률을 나란히 놓으면 분명한 이동이 보입니다. **보컬 지원자는 줄었고, 기타·드럼·베이스는 늘었습니다.**

2027 수시 경쟁률 Top 10

순위	대학	전공	모집	지원	2027 경쟁률	2026 경쟁률
1	서경대	보컬	5명	1,914명	**382.8 : 1**	393.0 : 1
2	한양대 ERICA	보컬	7명	2,276명	325.1 : 1	335.6 : 1
3	홍익대	보컬	8명	2,547명	318.4 : 1	332.6 : 1
4	경희대 국제캠퍼스	보컬	5명	1,123명	224.6 : 1	239.6 : 1
5	홍익대	드럼	3명	389명	129.7 : 1	119.3 : 1
6	홍익대	베이스	3명	387명	129.0 : 1	111.3 : 1
7	한양대 ERICA	기타	3명	384명	128.0 : 1	85.5 : 1
8	홍익대	기타	5명	619명	123.8 : 1	120.0 : 1
9	성신여대	보컬	6명	666명	111.0 : 1	49.6 : 1
10	한양대 ERICA	베이스	3명	289명	96.3 : 1	87.7 : 1

상위 네 자리는 모두 보컬입니다. 그런데 **그 네 곳의 경쟁률이 작년보다 전부 내려갔습니다.**

보컬 지원자가 292명 줄었습니다

경쟁률은 모집인원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람 수를 직접 세는 편이 정확합니다. 위 다섯 개 대학의 보컬 지원자를 더하면 이렇습니다.

대학	2026	2027	증감
홍익대	2,661명	2,547명	−4.3%
한양대 ERICA	2,349명	2,276명	−3.1%
서경대	1,965명	1,914명	−2.6%
경희대 국제캠퍼스	1,198명	1,123명	−6.3%
성신여대	645명	666명	+3.3%
합계	**8,818명**	**8,526명**	**−3.3%**

다섯 곳 가운데 네 곳에서 줄었습니다. 한 학교의 사정이 아니라 전체 흐름입니다. 성신여대만 21명 늘었는데, 그 까닭은 뒤에서 따로 보겠습니다.

그 자리를 밴드 악기가 채웠습니다

같은 다섯 개 대학에서 전공별 지원자를 세어 보면 방향이 반대입니다.

전공	2026	2027	증감
드럼	1,172명	1,325명	**+13.1%**
베이스	1,127명	1,255명	**+11.4%**
기타	1,866명	1,994명	**+6.9%**
건반	976명	988명	+1.2%
보컬	8,818명	8,526명	−3.3%
작곡	846명	805명	−4.8%

※ 작곡은 성신여대에 해당 전공이 없어 네 개 대학 기준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건반만 제자리**라는 점입니다. 기악이 통째로 오른 것이라면 건반도 같이 올랐어야 합니다. 그런데 늘어난 것은 기타·드럼·베이스 셋뿐입니다.

밴드를 구성하는 악기입니다. 기타·베이스·드럼은 밴드의 기본 편성이고, 건반은 밴드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밴드 음악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악기를 시작하는 학생이 늘었고, 그 흐름이 입시 지원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 현장에서도 같은 변화가 보입니다. **예전에는 건반을 배우던 자리에 요즘은 기타를 잡는 학생이 많습니다.** 실제로 2027 수시에서 기타 지원자는 1,994명으로 건반(988명)의 정확히 두 배입니다.

싱어송라이터는 늘었습니다

보컬에서 빠진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보여주는 숫자가 있습니다. 싱어송라이터를 따로 뽑는 학교 가운데, 작년과 올해 수치를 모두 공개해 비교할 수 있는 서경대를 보면 이렇습니다.

서경대	2026	2027	증감
보컬	1,965명	1,914명	**-51명**
싱어송라이터	360명	395명	**+35명**

보컬에서 줄어든 51명과 싱어송라이터로 늘어난 35명입니다. 한 학교의 숫자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노래만 하는 자리에서 직접 쓰고 부르는 자리로 옮겨가는 흐름**은 밴드 악기가 늘어난 것과 같은 방향입니다.

싱어송라이터를 따로 선발하는 학교는 서경대 말고도 여럿입니다. 2027 수시 기준으로 동아방송예술대 보컬과 싱어송라이터가 102.0 대 1, 국제예술대 싱어송라이터가 46.3 대 1, 여주대가 8.6 대 1이었습니다. 학교마다 전공을 나누는 방식과 공개하는 범위가 달라 전부를 같은 기준으로 견주기는 어렵습니다.

성신여대가 9위에 오른 이유는 다릅니다

표에서 성신여대 보컬만 유독 많이 올랐습니다. 49.6 대 1에서 111.0 대 1로 두 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원자는 645명에서 666명으로 21명 늘었을 뿐입니다.

달라진 것은 **모집인원**입니다.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	2026	2027
보컬	13명	**6명**
건반	6명	2명
기타	3명	1명
드럼	2명	1명
베이스	2명	1명

학과 전체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지원자가 몰린 것이 아니라 **문이 좁아진 것**입니다.

경쟁률을 읽을 때 모집인원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같은 일이 7위 한양대 ERICA 기타에서도 있었습니다. 경쟁률이 85.5 대 1에서 128.0 대 1로 50% 가까이 뛰었는데, 지원자 증가는 12%입니다. 모집이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 몫이 나머지입니다.

서경대 드럼도 마찬가지입니다. 55.2 대 1에서 83.6 대 1로 올랐지만, 모집이 6명에서 5명으로 줄었습니다.

경쟁률은 지원자를 모집인원으로 나눈 값이라 **분모가 줄어도 올라갑니다.** "작년보다 경쟁률이 올랐다"는 말만으로는 지원자가 몰린 것인지 자리가 줄어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 다섯 개 대학의 모집인원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보컬은 38명에서 31명으로, 기타·드럼·베이스는 62명에서 56명으로 줄었습니다.

정리

- Top10 상위 네 자리는 모두 보컬, 그러나 네 곳 모두 작년보다 경쟁률이 내려갔다
- 5개 대학 보컬 지원자 8,818명 → 8,526명 (−292명)
- 드럼 +13.1%, 베이스 +11.4%, 기타 +6.9% — 밴드 악기만 늘고 건반은 +1.2%로 제자리
- 기타 지원자 1,994명은 건반(988명)의 두 배

- 서경대 싱어송라이터는 360명 → 395명으로 늘었다 (같은 학교 보컬은 51명 감소)
- 성신여대 보컬 경쟁률 2배 상승은 모집 13명 → 6명 축소 때문
- 경쟁률 상승분 중 일부는 모집 축소 — 지원자 수를 같이 봐야 한다

이 장의 핵심

· 수시에 합격하면 등록과 상관없이 정시를 볼 수 없습니다(예외 세 학교).

· 경쟁률은 모집 인원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 수시 원서는 «붙으면 가겠다»는 학교로만 씁니다.

PART 6

실용음악과는 어떤 곳인가

실용음악과 1·2위는 4년제가 아닙니다

> 실용음악과 최상위는 3년제인 서울예대와 동아방송예대입니다. "4년제·인서울"이라는 조건을 거는 순간 이 두 학교가 빠지고, 남학생이라면 상위권 선택지는 두 곳만 남습니다.

대학은 인서울 4년제가 위이고, 실력이 조금 모자라면 전문대에 간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실용음악과는 다릅니다. **이 분야의 최상위 두 학교는 3년제 전문대학입니다.**

4년제 상위권은 분명히 있습니다

한양대, 홍익대, 경희대, 동덕여대, 서경대. 실용음악과를 둔 4년제 가운데 이 학교들은 당연히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학교 이름값이 있고,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고, 대학원도 갖추고 있습니다. 4년제를 선호하시는 부모님들이 많다는 점도 이 학교들의 자리를 받쳐 줍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학과와 같습니다.

그런데 TOP2는 3년제입니다

실용음악과에서 가장 위에 있는 두 학교는 **서울예술대학교와 동아방송예술대학교**입니다. 둘 다 3년제 전문대학입니다.

현장에서 이건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한양대와 서울예대에 함께 합격하면 학생들은 서울예대를 고릅니다. 열 명이면 열 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양대는 4년제 가운데서도 경쟁률이 가장 높은 축에 드는 학교인데도 그렇습니다.

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서울예대·동아방송예대·호원대를 묶어 **'서동호'**라고 불러 왔습니다. 실용음악과를 가장 먼저, 가장 오래 운영해 온 학교들입니다. 서울예대는 스스로를 "한국 최초의 대중음악 교육기관으로 출발한" 실용음악 전공이라고 소개합니다.

순위를 정하는 건 졸업생과 재학생의 수준입니다

실용음악과 순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여러 가지입니다. 교수진, 위치, 시설, 커리큘럼. 모두 중요합니다.

그래도 가장 큰 것은 **그 학교를 나온 사람들과 지금 다니는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가장 오래된 학교는 졸업생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동합니다. 무대에서, 방송에서, 음반에서 그 이름을 본 학생들이 그 학교를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신입생이 다시 그 학교로 모이고, 그들이 졸업해 또 현장에 섭니다. **전통이 수준을 만들고, 수준이 다시 전통을 잇습니다.** 학제가 3년이냐 4년이냐는 이 순환 안에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호원대는 4년제이지만 산업대학입니다

'서동호'의 마지막 자리인 호원대학교는 4년제입니다. 다만 일반대학이 아니라 **산업대학**입니다. 산업대학은 고등교육법이 따로 정한 학교 종류로, 지금은 청운대와 호원대 두 곳만 남아 있습니다.

호원대도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켜 온 학교입니다. 실용음악학부의 모든 수업이 군산 본교에서 진행되면서 한동안 선호가 주춤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활동하는 졸업생이 많고 요즘은 다시 올라오는 분위기입니다.

달라진 점은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학교와 함께 붙으면 무조건 호원대였다면, 지금은 한양대·서경대·홍익대와 함께 붙었을 때 **고민하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만큼 4년제 상위권이 올라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4년제·인서울"로 걸러 보면

그럼 "저는 인서울 4년제에 가고 싶어요"라는 조건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이름이 나온 학교들을 학제와 위치로 놓아 보면 이렇습니다.

학교	학제	위치	4년제·인서울
서울예술대학교	3년제	경기 안산	×
동아방송예술대학교	3년제	경기 안성	×
호원대학교	4년제(산업대학)	전북 군산	×
한양대 ERICA	4년제	경기 안산	×
경희대 국제캠퍼스	4년제	경기 용인	×
홍익대	4년제	서울	○
서경대	4년제	서울	○
동덕여대	4년제	서울	○ (여대)
성신여대	4년제	서울	○ (여대)

TOP2인 서울예대와 동아방송예대는 **3년제라서도, 서울이 아니라서도** 빠집니다. 이름값으로 손꼽히는 한양대와 경희대도 실용음악과는 각각 안산과 용인에 있어 인서울이 아닙니다.

남는 것은 홍익대, 서경대, 동덕여대, 성신여대입니다. 그중 두 곳은 여대입니다. **남학생이라면 상위권 선택지는 홍익대와 서경대, 두 곳뿐입니다.**

서울에 실용음악 관련 학과를 둔 4년제가 몇 곳 더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입시 현장에서 상위권 선택지로 거론되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도 학사 학위는 있어야 하지 않나요"

3년제를 졸업하면 받는 것은 전문학사입니다. 학사 학위가 필요하면 길이 있습니다. 서울예대와 동아방송예대는 졸업 뒤 1년을 더 다녀 학사를 받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고,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채워 학사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사 학위가 실제로 필요해지는 때는 **대학원에 가거나 교수를 하려 할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크게 쓰일 일이 없어서, 굳이 받지 않는 졸업생도 많습니다.

정리

4년제·인서울을 원하는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조건을 거는 순간 **이 분야의 최상위 학교들을 스스로 빼게 된다**는 것은 알고 고르셔야 합니다.

- 실용음악과 TOP2는 3년제인 서울예대와 동아방송예대다
- 한양대와 서울예대에 함께 붙으면 학생들은 서울예대를 고른다
- 순위를 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졸업생과 재학생의 수준이고, 그 수준은 전통에서 나온다
- 호원대는 4년제이지만 산업대학이고, 수업은 군산 본교에서 한다
- 한양대(안산)·경희대(용인) 실용음악과는 인서울이 아니다
- 4년제·인서울로 거르면 남학생의 상위권 선택지는 홍익대·서경대 두 곳이다
- 학사가 필요하면 전공심화과정이나 학점은행제로 받을 수 있고, 실제로 필요한 건 대학원·교수를 생각할 때다

이 장의 핵심

· 실용음악과 TOP2는 3년제인 서울예대와 동아방송예대입니다.

· 순위를 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졸업생과 재학생의 수준입니다.

· «4년제·인서울»을 조건으로 걸면 최상위 학교를 스스로 빼게 됩니다.

APPENDIX

학년별 준비 로드맵

중3 · 고1

기본기와 듣는 귀를 만드는 시기

전공 기본기를 매일 다지고, 좋아하는 곡을 직접 카피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이론·시창은 하루 10분이라도 지금 시작합니다.

고2

입시곡 후보와 무대 경험

장르·템포가 다른 곡을 여러 개 만들어 보고, 모의평가와 무대에서 실전처럼 점검합니다. 어떤 음악을 하고 싶은지 말로 정리해 봅니다.

고3 상반기

지원 학교를 정하고 역산

지원 목록을 먼저 정하고, 학교별 지정 조건에서 거꾸로 준비할 것을 뽑습니다.

고3 하반기

수시 → 수시 2차 → 정시

수시 원서는 «붙으면 가겠다»는 학교로만 씁니다. 1차에서 안 돼도 수시 2차와 정시가 남아 있습니다.

재수생

약점을 정확히 알고 시작

지난 입시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부터 짚고, 하루 일과를 규칙적으로 지킵니다.

MORE

더 알아보기

새 칼럼은 홈페이지에 계속 올라옵니다. 입시 소식과 학생들의 무대는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장님 입시 칼럼
khmusic.co.kr/blog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kyunghee_music

초견챌린지
매일 코드·리듬·멜로디 초견

크루키
영상으로 지원하는 온라인 오디션

인스타그램
@kyunghee_music

유튜브
학생들의 무대 영상

경희실용음악학원 · 2007년부터 실용음악과 입시 전문
부천역 3분 · 상담 032-611-9191 · khmusic.co.kr